



**김석길 대한건설협회 원주시협의회장**

김석길 제12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원주시협의회장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해 친목으로 회원사들이 상생 협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들의 활동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 판부면 서곡리가 고향인 원주 토박이. 진광고, 경희대를 졸업. 대원라이온스클럽 회원. 원주시 건설협회 운영위원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정혜승씨와 2남. 취미는 다양한 운동. [원주]

**“지역이웃 위한 나눔 들불처럼 일기 바랍니다”**

횡성 정대환 동서산업 대표  
아너소사이어티 약정 서명

“사업을 통한 수익을 조금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28일 횡성군청에서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 클럽)에 가입한 정대환(56) 동서산업(주)·이레건설(주) 대표의 소감이다.

대한건설협회 횡성군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대표는 2006년부터 나눔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연례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 대표가 기부한 장학기금 규모만 현재까지 3,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연탄 배달의 경우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스콘 판매액의 일부를 적립해 연탄을 구입,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고민을 풀어냈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던 터에 아너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이 28일 횡성군청에서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인 정대환 동서산업(주) 대표와 회원인 조창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신형철 대성병원장, 한규호 횡성군수, 한만우 도시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석원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허남윤기자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배경은 의외로 단순 명료했다. 정 대표는 “처음에는 기부하는 것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나눔이 들불처럼 일어나려면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죠”라며 “거창한 계획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선한 곳에 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기부하기로 한 아너소사이어티 약정서에 서명했다. 횡성지역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은 신형철 횡성대성병원장과 오덕근 서울F&B 대표에 이어 3번째, 원주에서 가입한 조창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을 감안하면 4번째다. 도내는 총 67명이 가입해 있다. 횡성=허남윤기자



정대환 동서산업 대표는 28일 오후 군청에서 67번째 강원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총 1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 정대환 동서산업 대표

###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정대환(56) 동서산업 대표가 횡성지역 3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대환 대표는 28일 오후 횡성군청에서 한규호 군수, 한만우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조창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과 신형철 대성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이번 가입으로 정 대표는 강원 아너소사이어티 67호, 횡성지역에서는 제3호, 횡성연고로는 제4호 아너소사이어티로 활동하게 됐다. 정 대표는 공군면 출신으로 동서산업, 이레건설 등을 운영하고 건설협회 횡성군협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년간 봉사활동과 이웃 돕기에 앞장서왔다. 정태욱